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 대상은 171만7천여 전 도민

전북자치도, 21일 오전 9시부터 시작... 도민 1인당 최대 45만원까지
지급 방식은 신용 및 체크카드·선불카드·지역사랑상품권 중 택일

전북특별자치도는 오는 21일 오전 9시부터 전 도민을 대상으로 '1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소비쿠폰은 새 정부의 첫 추경사업으로 지역 민생경제 회복과 소상공인 매출 확대를 위한 소비 진작 목적의 정책이다. <관련기사 2면>

지급 대상은 2025년 6월 18일 기준 전북에 주민등록이 된 171만6,841명 전 도민이다. 일반 도민에게는 1인당 15만원, 차상위계층에게는 30만원,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40만원이 지급되며, 여기에 전주·군산·익산·완주에 거주하는 주민은 30만원, 농어촌 인구 감소지역 10개 시군에 거주하는 주민은 50만원이 각각 추가로 지급된다. 이에 따라 도민 1인당 최대 18만원에서 최대 45만원까지 지급받게 된다.

성인은 개별 신청이 가능하며,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대신 신청해 지급받는다. 지급 방식은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모바일·카드형) 중 선택할 수 있다.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은 카드사 홈페이지나 지역사랑상품권 앱을 통해 24시간 접수할 수 있다. 단, 시스템 점검 시간인 매일 밤 11시 30분부터 자정 30분까지는 제외된다.

오프라인 신청은 카드 연계 은행 영

업점이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은행은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주민센터는 오후 6시까지 신청을 받는다. 신용·체크카드는 신청 다음 날 자동 충전되며, 선불카드는 현장에서 바로 수령할 수 있다. 신청 첫 주는 신청자 혼잡을 피하기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 요일제가 적용된다. 예컨대 출생연도 끝자리가 1 또는 6인 경우 월요일에 신청할 수 있고, 1972년, 1977년 출생년도 끝자리가 2, 7인 출생자는 화요일에 신청할 수 있다.

전북도는 김종훈 경제부지사를 단장으로 한 전담 TF를 구성해 총괄반, 집행관리반, 현장대응반, 행정지원반, 언론대응반 등 5개 반 18명으로 운영되며, 매일 점검회의를 통해 준비상황을 철저히 점검하고 있다. 아울러 도청 3층에는 전담 콜센터를 설치하고 직원 6명이 상시 근무에 들어갔다. 시군 콜센터도 함께 운영되며, 도내 242개 읍면동에 246개의 접수창구가 마련되어 780명의 인력이 배치된다. 선불카드는 전체 대상자의 약 30% 수준인 51만 매를 미리 확보했다.

이번 소비쿠폰 사업에는 총 3,577억 원이 투입되며, 이 중 90%에 해당하는 3,219억 원의 국비는 7월 16일 신속히 교부됐다. 소비쿠폰은 대형마트, 백화

점, 유흥·사행업소 등을 제외한 연매출 30억원 이하의 도내 소상공인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도내 8만7,000여개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하나, 시군별 사용처가 다를 수 있어 앱이나 시군 홈페이지를 통한 확인이 필요하다.

소비쿠폰은 주소지 시군 내에서만 사용 가능하며, 도는 이를 통해 도내 소비를 유도하고 지역경제의 선순환을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도내 공공기관, 민간,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소비촉진 캠페인도 추진할 계획이다. 가족관계 변동이나 이혼 등의 사유로 미성년자 소비쿠폰 지급자를 변경해야 할 경우에는 21일부터 9월 12일까지 국민신문고 또는 읍면동 사무소를 통해 이의신청할 수 있다.

김종훈 경제부지사는 "짧은 준비기간에도 불구하고 도와 시군이 합심해 신속하고 원활한 지급 준비를 마쳤다"며 "이번 소비쿠폰이 도민의 소비를 촉진하고 지역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기타 문의사항은 국민콜 110, 전북자치도 전담콜센터(063-280-4950~4955), 각 시군 콜센터로 하면 된다.

/이만호 기자

도로에 쓰러진 가로수, 전기톱으로 자르는 소방대원



전북 전 지역에 호우특보가 내려진 17일 오후 1시 11분경 정읍의 한 도로 위로 가로수가 쓰러지자 소방대원들이 전기톱을 이용해 제거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 제공>

전북에 강우... 곳곳 비 피해 신고 속출

풍수해 관련 신고 34건... 나무 쓰러짐·도로 침수 등
도, 재대본 비상 2단계 격상... 주요 취약지점 점검 강화

지난 16일부터 전북 지역에 많은 비가 내리며 각종 피해가 잇따랐다. 17일 전주시상지청에 따르면 주요지점 누적 강수량(16일부터 17일 오후 5시)은 순창군 246.4mm, 어청도(군산) 179.0mm, 남원 168.8mm, 고창 112.8mm, 강진(임실) 110.0mm, 완산(전주) 97.5mm, 완주 86.0mm, 진안 77.0mm, 번암(장수) 75.5mm, 함리(익산) 72.5mm, 심포(김제) 69.0mm, 내장산(정읍) 66.5mm, 무주 53.5mm, 새만금(부안) 43.5mm를 기록 중이다.

현재 전북 지역은 오후 6시를 기해 5개 시군(고창·임실·순창·정읍·남원)에 호우경보, 나머지 9개 시군(부안·군산·김제·완주·진안·무주·장수·익산·전주)에 호우주의보가 발효됐다.

계속해서 내리는 비는 오는 19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이며, 이날부터

19일까지의 예상 강수량은 100~200mm다. 일부 지역은 최대 300mm 이상의 비가 쏟아지는 곳도 있다.

이를 가까이 내리는 호우로 인해 도내 곳곳에서 피해 신고도 발생했다.

이날 하루동안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로 접수된 풍수해 관련 신고는 오후 5시까지 모두 34건으로 집계됐다.

전북 각지에서 도로에 나무가 쓰러졌거나 물이 찼다는 신고 등이 상당수 접수됐다. 주택으로도 물이 들어찬다는 신고도 8건 접수됐다.

이 외에도 남원 시내면에는 산을 내려오던 중 계곡물이 불었다거나 운봉면에는 토사가 유실돼 도로로 흘러내려왔다는 신고도 들어왔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이날 오후 1시 30분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재대본)를 비상 2단계로 격상해 운영하고 있다.

재대본 비상 2단계는 도내 호우경보

3곳 이상이 발효될 경우 발령된다. 호우경보가 7곳이 되면 3단계가 가동된다.

도는 이 같은 기상 상황에 따라 둔치주차장, 지하차도, 하상도로, 하천변 산책로, 계곡 등 인명피해 우려 지역에 대해 사전 통제를 실시하고, 공사 현장과 배수로 등 주요 취약지점에 대한 점검도 강화하고 있다.

현재 여객선과 여객은 모두 출항이 통제됐으며 하천 인근 산책로 및 공립공원 탐방로 등도 일부 접근이 제한된 상태다.

전북자치도소방본부 역시도 풍수해 대응 2단계 긴급대응체계를 발령하고 모든 소방인력을 즉시 가동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었다.

향후 기상 상황과 피해 발생 여부에 따라 긴급대응체계를 탄력적으로 유지하고, 도민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김태훈 기자

토·일요일 신문 쉽다.

침수 위험지역 접근 자제... 전북소방, 집중호우시 도민 행동요령 홍보

고립될 경우 119에 신고해야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본부장 이오숙)가 17일 내린 집중호우와 관련, 도민의 인명과 재산 피해를 줄이기 위한 행동요령 홍보에 나섰다.

전북소방본부는 도민들이 사전에 기상정보를 수시로 확인하고, 침수 위험지역 접근을 자제하는 등 다음과 같은 안전수칙을 실천해 줄 것을 당부했다.

먼저, TV·라디오·스마트폰 앱 등을 통해 기상 상황과 특보 발령 여부를 수시로 확인해야 하며, 예비특보가 발효된 경우에는 집 주변의 배수로와 하수구가 막히지 않도록 미리 점검하고 정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하천 주변이나 저지대, 산사태 위험지역 등 침수 위험이 높은 곳으로의 이동은 가급적 삼가야 한다.

집중호우가 시작되면 외출을 자제하

고 안전한 실내에 머무르며 외부 상황을 주시해야 한다. 특히 침수 지역에 서는 감전 위험이 있으므로 전기 차단기를 내려 전원을 차단하고, 만약 고립된 경우에는 즉시 119에 신고해 구조를 요청해야 한다.

차량으로 이동 중 물에 잠긴 도로를 발견했을 경우에는 절대 진입하지 말고 우회하거나 안전한 장소에 머무르는 것이 필요하다.

/이만호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전북은행이 함께하는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금융으로 더 따뜻한 세상을 만듭니다

OPEN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이란?

지원대상	✓매출 규모: '24년 혹은 '25년 연 매출액 0원 초과~3억원 이하 ✓활동사업자: 개업일이 2025. 5. 1 이전이며, 신청일 기준 휴폐업상태가 아닌 영업사업체 ✓업종 제한: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업종이 아닌 모든 업종
신청기간	2025.7.14(월) 9시부터 ~ 11.28(금) 18시까지
지원금액	50만원
지원방식	소상공인 1인당 등록한 카드로 지급(2025.12.31까지 사용)
사용항목	공과금 및 4대 보험료

자세한 내용은 전북은행 홈페이지(www.jbbank.co.kr) 또는 부담경감크레딧.kr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유의사항]

※ 연회비 범위 0원 ~ 120,000원
※ 계약을 체결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연이자율: 회원별, 이용상품별 약정금리+최대3%(p), 법정 최고금리(연20%)이내 단, 연체발생 시점에 약정금리가 없는 경우는 아래와 같이 적용함
- 일이자 할부거래 연체시: 거래발생 시점의 동월말 할부계약기간의 유이자 할부 금리
- 무이자 할부거래 연체시: 거래발생 시점의 동월말 할부계약기간의 유이자 할부 금리
- 그 외의 경우: 약정금리는 상사법정이율과 상회금융 가계자금 대출금리(한국은행에서 매월 발표하는 가장 최근의 비은행 금융기관 가중평균대출금리(신규대출 기준)) 중 높은 금리 적용

※ 상환능력에 비해 신용카드 사용액이 과도할 경우, 귀하의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 개인신용평점 하락 시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일정기간 카드 납부대금을 연체할 경우, 모든 원리금을 변제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필요이상으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신청자(신용불량)의 개인신용평점, 이용한도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신용카드 발급이 부적절한 경우(개인신용평점 낮음, 연체금 보유) 카드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카드를이대금과 이에 수반되는 모든 수수료를 지정된 대금 결제일에 상환합니다.
※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듣고 내용을 충분히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여신금융협회 심의제2025-C2b-10111호 (2025.07.03~2025.12.31)